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 치안 파수꾼 역할 특특

꼼짝마! 다 보고 있다  
시민 안전 지키는 '1260개의 눈'



여수시 CCTV 통합 관제센터가 5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은 관제센터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 <여수시 제공>

“꼼짝 마라! 다 보고 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재력가 정부 살해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범인의 인상착이가 담긴 CCTV(폐쇄회로 TV)였다.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 요구가 늘수록 CCTV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수시가 첨단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 범죄·사고 예방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상정보 제공해 강력범죄 해결=여수시와 여수경찰서는 4일 “여수시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5대 강력범죄 등 총 440여 건의 사건·사고 대응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통합 관제센터는 문을 연 뒤 경찰수사에 필요한 1100여 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해 시민안전과 치안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관제센터에서는 CCTV 모니터링 도중 위험 상황이나 사건·사고 영상이 확인되면 곧바로 112 종합 상황실로 통보, 경찰의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뤄지면서 범인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 같은 공조수사 효과로 지난달 5일과 6일 연속으로 발생한 차량도난 사건 특수절도범들을 모두 검거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하태웅 여수경찰서장은 “이번 사건해결에 큰 공을 세운 통합 관제센터 요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박람회 개막전인 지난 2012년 4월 여수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개소했다.

통합 관제센터 개소로 담당 부서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던 여수지역 및 초등학교 CCTV를 통합 연계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740대의 CCTV로 출발한 통합 관제센터는 올해 시민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170대를 포함, 모두 1260대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 관제센터 김흥현 팀장은 “24시간

2012년 문 연 이후  
사건·사고 440여건 대응  
지능형 영상분석·추적기능  
범죄 예방·범인 검거 큰 도움  
안전한 여수 만들기 첨병으로



효과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상시 근무와 각종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람식별,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도 갖춰=현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경찰 3명과 전문 관제요원 26명을 포함한 총 29명이다.

이들은 4초 3교대의 어려운 근무 여건이지만 시민안전을 위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365일 24시간 고된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관제요원 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CCTV가 100여대에 달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등 어려움도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수시 통합 관제센터는 물체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고 차량과 사람 식별은 물론, 차량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분석기능을

갖추고 있다.

관제요원이 인지할 수 없는 위험구역에 경계를 설정하고, 배회 등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이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전 범죄예방과 사건 발생시 핵심적인 영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 인식해 추적·확대하고 확대 영상을 저장·검색하는 지능형 자동추적기능도 사건해결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다른 지자체가 보유하지 못한 순찰차량 영상 전송기능은 GIS(지리정보시스템)지도 상에서 순찰차량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순찰차 전용 단말기에 사건·사고 접수현장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여수시는 통합 관제센터 내에 지난 6월부터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일환으로 비상상황시 행동요령과 대응능력을 길러줄

“어린이 안전체험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 학부모가 직접 관제요원이 돼 1일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우리 아이 우리가 지킨다’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시는 또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제요원 등 내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보안교육 실시, 영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제센터 이중 지문인식 출입 통제, 관제센터 내·외부 CCTV 4대 별도 운영, 개인 휴대폰 반납후 관제실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금지, 영상정보 30일 이내 보관 원칙과 30일 경과 후 자동 파기, 영상정보 열람·제공시 마스킹(모자이크) 기법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꼼꼼한 보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 전이근 정보통신과장은 “통합 관제센터는 지금까지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특수 절도범을 검거하는 등 여수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우수사례를 시의 다양한 행정분야로 확대 적용,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4개 기업과 473억원 투자협약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수택터미널, ㈜와이엔텍, ㈜블루오션테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등 4개 기업과 공장용 신·증설하고 범인사무실을 여수로 이전하는 등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총 473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앞으로 ㈜여수수택터미널은 여수 국가산단내 2만6000여㎡ 부지에 273억원을 투자해 액체화합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물류저장시설을 조성한다.

㈜와이엔텍은 여수 국가산단과 인근 부지 7만2000여㎡에 150억원을 투자해

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설치한다. 또 ㈜블루오션테크는 울촌 1산단 여수지역에 30억원을 투자해 부잔교, 마리나, 해양펜션 등 해양부유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건립한다.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억원의 투자해 다른 지역에 있는 전남지회를 울촌으로 이전·신설하고, 연간 2000여명의 산단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투자기업들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명품마을’ 안도 동고지 마을 본격 개발

여수시·국립공원공단 협약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된 여수 남면 안도 동고지 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여수시와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력 사업은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특성화된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시와 공단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시행 상호협력,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협력사항을 약속했다.

동고지 마을은 ‘주민도 탐방객도 휴식을, 편안한 동쪽의 동고지 마을’이라는 비전을 마련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매년 1억원씩, 총 9억8700만원(국립공원관리공단 6억원, 여수시 3억8700만원)이 투입돼 개발된다.

구체적으로 ▲마을안길과 지붕 개량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어가식당, 민박 리모델링 등 마을소득 기반 조성사업 ▲주민 복지증진 ▲안도해변~동고지 간 산책로 및 해돋이 전망대 조성 등 사업이 공동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고지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조성되면 천혜의 해양자연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안도해수욕장, 돌레길 등 기존 관광지 또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섬 관광 명소로 유명해진 금도 비렁길과 더불어 안도가 새로운 생태 휴양 관광지로 발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동고지 마을은 지난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거쳐 명품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전남에서는 동고지 마을을 포함해 6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세 일 글

“관광객 발길 줄이는 뷰티풀 여수 만들 것”

이 승 옥 여수부시장



“도정(道政) 경험을 살려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뷰티풀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1일 취임한 여수시 이승옥(58) 신임 부시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원도심 활성화,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현안 사업들을 빈틈없이 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일자리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30만 시민과 공직자들의 가장 큰 책무”라며 “효율적으로 일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진 출신인 이 부시장은 장흥고와 방송통신대·전남대 행정대학원(석사)·호남대 행정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정책기획관,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등을 지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일보 62th anniversary advertisement with phone numbers and a map of Jeonnam province.